“어린 자식들은 어쩌라고”… 통곡에 잠긴 빈소

완도 순직 박승원·노태영 소방관 장례식

결혼 앞둔 소방교·세 아이 아빠 소방경 유가족 ‘오열’
국무총리 분향·완도고 등 추모 발걸음… 오늘 영결식

13일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 마련된 순직 소방공무원 합동분향소에서 완도고등학교 학생들이 헌화하고 있다.

“딸 같이 살갑던 막내아들이었는데…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습니다.”

13일 오전 전남 완도군 완도읍의 한 장례식장. 전날 수산물 저온창고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완도소방 소속 박승원 소방경(44)와 해남소방 소속 노태영 소방교(30)의 빈소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다.

장례식장 안팎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과 지인들의 통곡으로 가득 찼다.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쏟아내는 이들 사이로, 믿기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듯 고인의 이름을 부르는 절규가 이어졌다.

박 소방경의 빈소에서는 가족들의 오열이 끊이지 않았다. 서로를 부둥켜안은 채 영정사진을 바라보던 유족들은 “우리를 두고 어디 가느냐”는 절규를 쏟아냈다. 19년간 현장을 지켜온 베테랑이자 세 아이의 아버지였던 그의 비보는 주변에 큰 충격을 안겼다.

노 소방교의 빈소 역시 무거운 침묵 속 탄식이 이어졌다. 특히 오는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장례식장에는 고개를 숙인 소방대원들과 해경 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동료를 잃은 이들은 말없이 헌화하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고, 일부는 끝내 빈소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채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한 대원은 고인을 떠올리다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조문을 마친 시민들도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 시민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들어간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사연을 들을수록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날 빈소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정 앞에 분향한 뒤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김 총리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슬픔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남겨진 가족을 지원하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다. ‘헌신과 용기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문구 아래 국화꽃이 놓인 영정 앞에는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분향소 인근에서는 전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마음안심버스’를 운영하며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심리 상담과 스트레스 측정 등 지원에 나섰다.

지역 학생들의 자발적인 추모도 이어졌다. 완도고등학교 학생들은 검은 옷을 입고 분향소를 찾아 국화를 헌화한 뒤 묵념하며 고인을 기렸다. 일부 학생들은 영정 앞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완도고 3학년 이시원양은 “순직 소방관 중 한 분이 아버지 학교 후배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다”며 “소방관의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큰지 처음으로 실감했다”고 말했다. 같은 학년 정모군도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추모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두 소방관의 합동분향소는 이날부터 완도문화예술의전당에 마련돼 운영되며, 영결식은 14일 오전 9시 완도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된다. 안장식은 같은 날 오후 4시 대전현충원 소방관묘역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글·사진=송태영 기자 sty1235@

경찰, 화재 참사 원인 규명 등 수사 착수

47명 규모 대책본부 구성…합동감식 진행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완도경찰은 13일 냉동창고 화재사고 수사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대책본부는 기존 완도 경찰과 전남경찰청 인력을 일부 지원 받아 총 47명 규모로 꾸려졌다.

본부는 화재 발생 직전 냉동창고 내부에서 바닥 정비 작업을 진행한 60대 작업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당시 현장에 있었던 소방대원과 건물 관계자 등 4명도 잇따라 조사해 화재 전후 상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2명, 경찰 과학수사대 9명, 소방 화재조사팀 11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도 진행됐다.

수사당국은 준공된 지 20년 가까이 된 냉동창고 바닥에 시공된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토치(불을 압축해서 일반적인 불에 비해 강한 화력을 내게 하는 화기)가 사용됐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해당 작업은 노후된 바닥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부 제거되지 않는 부분을 고열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에폭시는 가연성이 있어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는 물질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향후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경찰은 작업자의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실화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확정하는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데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A씨의 실수로 불이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화재 진압 중이던 소방관이 고립돼 숨진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와 유증기 폭발 등 현장의 돌발 상황인 만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경찰은 바닥 공사를 한 동료 작업자를 조사하는 등 추가 참고인 조사와 정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13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영암 대불산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를 기리는 49재를 전남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 49재 엄수

광주·전남 노동단체 “인권침해 개선 집중”

영암 대불산단에서 일하다 사망한 베트남,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2명을 추모하는 49재가 전남도청 앞에서 엄수됐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는 13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 앞에서 영암 대불산단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이주노동자를 기리는 49재를 열었다. 이날 49재는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월24일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두옹반탄, 28일에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톰소띠에가 영암 대불산단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참석자들은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함께 바꾸겠다는 결의의 마음을 담아 49재를 진행했다”며 “전남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없는 전남경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노동착취를 멈추고, 건강과 안전 증진을 위해 행정당국의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

목포해경, 선박 불법 증·개축 50여건 적발

특별단속 결과…무면허 운항 등 확인

목포해양경찰은 지난 2월부터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총 50여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 유형으로는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 증·개축 위반 27건, 무등록(무면허) 운항 13건, 과적 및 과승 8건, 음주운항과 승무기준 위반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적발된 선박 중에는 검사 없이 선실을 확장하거나 구조물을 높이는 등 불법 증·개축 사례 2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무단 개조는 선박의 무게 중심을 높여 복원성을 떨어트리고, 파도나 과도한 선회 시 전복 위험을 매우 증가시키는 등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불법 행위를 차단해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주용준 기자 ju609911@gwangnam.co.kr

‘지인 얼굴 음란물 합성 의뢰’ 20대 벌금형

성폭력 치료 40시간 이수 명령

여성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을 의뢰한 철없는 20대가 벌금 1500만원을 물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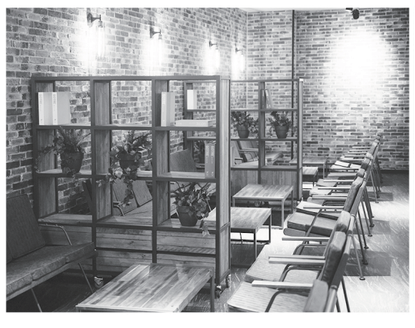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4월 3~8일 사이 자신이 갖고 있던 여성 지인 B씨 등 2명의 사진을 텔레그램 익명 이용자에게 전달, 딥페이크 합성 음란물 44장 제작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제작된 허위 영상물은 실제 유포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허위영상물의 내용,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메가박스 광주상무점 현재상영작
MEGABOX
www.megabox.co.kr ARS 1544-0070

새롭게 개편된
리클라이너 영화관!
메가박스 광주 상무점에서
만나요!